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47호

대한아이스하키협회 ... '맷값 폭행' 최철원

'맷값 폭행' 억울하다는 최철원... 당시 판결문 다시 보니

최하은 JTBC 스포츠문화부 기자

데스크 시각

빙상계 파벌싸움부터 끝내라

박재홍 서울신문 체육부 차장

투데이 촌추

심신이 따뜻한 바른 학생선수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김덕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

장애인 선수 피해

각종 폭력에도 도움 요청 못 해

노경조 아주경제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의 정치화 이슈에 휘말린 IOC,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만 재강조

김경호 스포츠경향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맷값 폭행’ 억울하다는 최철원... 당시 판결문 다시 보니

[최철원/마이트앤메인 대표 : 영화 베테랑에 나온 거는 한 95퍼센트는 과장과 허구인 거고.]

[앵커]
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이 막히자,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의 가해자 최철원 씨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1년 전 사건이 실제와 다르고 또 보도가 과장됐다는 건데 정말 그런지, 저희가 당시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을 놓고 어제(16일) 법정에 선 최철원 씨는 11년 전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철원/마이트앤메인 대표 : 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로 언론에서 만들어준 거지.]

그러나 2010년,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에 소환된 최씨는 이렇게 답한 바 있습니다.

[최철원/마이트앤메인 대표 (2010년 12월) : 저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어떤 말이 진짜인지, 당시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최씨가 '2천만 원을 주는 대가로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겠다' 한 뒤 엉덩이를 치자, 열 대를 맞은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오히려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여 전치 2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실제 당시 피해자는 언론을 통해 시퍼렇게 멍든 몸과 살점이 떨어진 입 안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철준/당시 피해자 변호인 : 상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피해자가) 상담하러 왔을 때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최씨는 어제, 돈을 건넨 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세상에 잘못 알려졌다고도 말했습니다.

[최철원/마이트앤메인 대표 : 돈 던져준 적도 없고 온라인 송금해줬어요. 이 모든 게 경찰과 검찰 조사기록, 재판기록에는 다 있는데 기자 여러분들이 써주질 않더라고...]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가 송금한 건, 화물차 기사였던 피해자의 차량을 사들인 대가로 지불한 5천만 원. 이른바 '맷값'은 폭행 현장에서 천만 원권 수표 두 장으로 지급됐고, 이 돈 조차 회삿돈으로 드러나 횡령 혐의까지 인정됐습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화면출처 : MBC '시사매거진 2580'·민중의소리)

빙상계 파벌싸움부터 끝내라



▲ 박재홍 체육부 차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심석희와 A코치가 나눈 메시지 대화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욕설을 섞어 같은 대표팀 선수를 깎아내리고 더 나아가 동료가 금메달 따는 것을 볼 수 없어 중국 선수를 응원한다는 내용에 일부 국민은 배신감까지 토로했다. 심석희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피해를 본 사실은 이번 사안과 별개다.

국민이 실망한 이유는 심석희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과 평창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이고, 여전히 출중한 기량을 뽐내며 국가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한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의 기대주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화 자체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공개된 지극히 사적인 문제다. 그러나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비방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은 컸다.

지금 여론은 심석희가 고의로 최민정을 넘어뜨렸는지, 이로 인해 심석희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것인지에 집중돼 있다. 지난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심석희가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브래드 버리’(승부 조작을 뜻하는 은어)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석희가 최민정을 밀친 건 맞지만 고의 충돌에 대한 증거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얘기다. 빙상연맹 내 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이 남았지만, 고의 충돌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심석희는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심석희가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고, 우리나라가 메달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쇼트트랙과 빙상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다.

조사위는 심석희가 최민정을 포함해 동료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맞다. 심석희 본인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빙상계 내부의 고질적인 파벌싸움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최민정은 평창올림픽 3000m 계주와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심석희와 최민정이 직접적으로 파벌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지만 두 선수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심석희는 한국체육대, 최민정은 연세대 출신이다. 심석희가 A코치와 나눈 대화 중에는 “지금 라커룸에 유빈(이유빈), 나, 민(최민정), 세유(박세우 코치)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나가면 계주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안 나가고 있다. 그냥 나가고 녹음기 켜 둘까”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이유빈은 최민정과 같은 연세대 출신이다.

파벌싸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같은 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 개선해야 할 문제다.

빙상연맹은 오는 21일 공정위를 열어 심석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여부도 정해진다. 하지만 이에 그쳐선 안 된다. 익명을 요구한 빙상계 관계자는 “빙상계 내 지도자들 사이에서 ‘내 애들’과 ‘남의 애들’을 구분하는 식의 구시대적인 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파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제2의 심석희와 최민정은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가 인정한 것처럼 빙상계 내 동료 사이의 욕설과 비방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빙상계는 그 원인을 스스로 밝히고 공개적으로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이 기회다.

심신이 따듯한 바른 학생선수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총청투데이
김덕진 대전서부교육청 2021.12.14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



▲ 김덕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

도쿄올림픽에서 미남 검객으로 불린 세계랭킹 1위 오상욱이 펜싱 사브로 종목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합작하며 스포츠계의 스타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데 흰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전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대전학교체육의 큰 결실이며 나아가 대전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는 88올림픽을 계기로 급성장했다. 여러 기록으로는 이미 스포츠 강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부작용이 심하다. 승리의 화려함 이면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우고 있다. 갓 운동을 시작한 어린 학생선수에 대한 인성교육과 심리적 안정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

지난해 철인3종 종목 고(故) 최숙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소위 엘리트 스포츠의 총체적인 부실과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력이 드러나 학생선수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배구계 쌍둥이 스타의 과거 학교폭력, 빙상계의 지도자와 선수, 선수와 선수 간 끊이지 않는 갈등의 고리처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의 3에 근거해 학생선수의 인권신장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활동이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교내 폭력이 급격하게 감소하진 않는다. 학교운동부 운영에도 학교관리자의 관심과 운동부지도자들의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을 때 학생들이 비로소 서서히 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심신이 따듯한 바른 학생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인권신장을 위한 양질의 교육활동 △심리 전문가의 감정코칭 및 맞춤형 상담활동 △첨단장비를 활용한 과학적인 운동능력 측정과 분석(스포츠의 과학화) △진로와 큰 꿈을 위한 스포츠 분야 멘토와의 만남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선수들의 정서, 교우관계, 행동특성, 운동기능을 심층 평가해 선수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인 조기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흔히 인생에서 속도보다 방향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듯 학생선수도 당장의 성적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신체를 혹사하는 과거의 훈련 방식에서 탈피해 심신의 기본기 훈련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교육청, 학교, 학부모가 함께 정성과 사랑으로 심신이 바른 학생선수를 키워낼 때 온전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장애인 선수 피해] 각종 폭력에도 도움 요청 못 해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2021.12.18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증진 정책 개선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장애인 선수 인권상황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스포츠 특성상 비장애인에 비해 체육시설 접근권 등 차별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각종 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이는 인권위가 201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인권위는 초·중·고교 및 대학 학생선수와 직장운동부 선수 등 비장애인 선수와 함께 장애인 선수의 인권침해 실태·원인을 살폈다.

◆ "여전히 체육시설 이용 어렵고, (성)폭력 만연"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선수들은 전용 또는 공공·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 선수 1만70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유효 응답자 1554명) 결과 56.9%는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을, 58.9%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중복 포함)고 밝혔다.

문체부가 같은 해 실시한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에서도 생활권 주변에서 선호하는 체육시설로 장애인전용 공공체육시설(33.8%), 공용 공공체육시설(22.2%), 민간체육시설(7.6%) 순으로 꼽았다.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이용자의 35.7%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장애인 운동용품 장비 부족(33.5%), 샤워실 등 편의시설의 부족(25.3%) 등을 들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선 비장애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눈치가 보여)로 이용을 포기했다는 응답 비율이 36.5%에 달했다. 휠체어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장애인 전용주차장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거나(29.1%), 안전상의 이유(24.9%), 장애 정도가 심각하다는 이유(15.6%)로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도 많았다.

폭력의 심각성도 컸다. 어느 한 가지 이상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 선수는 22.2%(345명)였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중복응답 포함)으로는 폭행(6.9%), 기합 및 얼차려(8.8%), 놀림이나 집단 따돌림(6.6%), 과도한 훈련 강요(10.4%), 공포감이나 위협적인 분위기(7.8%), 체벌 등 이유로 감금(1.5%) 등이 있었다.

폭력의 가해자는 감독·코치(49.6%), 선배 선수(31.6%), 동료나 후배 선수(22.0%) 등으로 조사됐다. 주로 훈련장(59.4%)에서 폭력이 발생했고, 이외에 경기장(30.7%), 합숙소(13.3%), 식당·회식자리(11.6%), 전지훈련 숙소(7.5%), 운동부실(7.0%), 지도자실(숙소 포함, 4.6%), 이동차량(4.3%), 라커룸·샤워실(2.6%) 등 다양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험 비율은 9.2%(143명)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13.6%, 남성 7.8%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 6.1%, 시각적 성희롱 6.0%, 육체적 성희롱(성폭력) 5.7%였다.

이 중 언어적 성희롱은 '누군가 내 신체부위(가슴·엉덩이 등의 크기나 모양 등)에 대해 비교·평가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3.9%) 등의 답변이 나왔다. 시각적 성희롱은 '누군가 내가 옷을 갈아입을 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 적이 있다'(1.4%), '누군가 내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 등 벌거벗은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진 적이 있다'(1.0%) 등의 피해도 있었다.

성폭력도 '누군가 내 허락 없이 손·머리·어깨·허벅지·엉덩이 등 내 신체를 만진 적이 있다'(4.0%)는 응답부터 '폭력과 위협으로 강제 성관계 요구'(0.8%), 강간(0.6%)까지 천태만상이었다.

◆ "해결 안 될 것 같아" ...피해 신고 비율 한 자릿수

문제는 폭력 피해 장애인 선수들 중 주변이나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16.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들이 도움을 요청한 대상·기관(중복응답 포함)은 가족·친인척(41.4%), 친구·지인(34.5%), 체육단체(31.0%), 외부 상담센터(13.8%), 수사기관(10.3%) 순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얘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다. 또 '도움을 요청할 마땅한 곳을 몰라서'(13.6%),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11.8%) 등으로 확인됐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장애인 선수들의 약 35%도 피해 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이유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40.0%)였다. 이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22.0%),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14.0%), '피해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12.0%),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12.0%) 등 안타까운 답변들이 많았다.

신고 비율도 현저히 낮았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선수들 가운데 9.1%만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등 체육단체 내부에 신고했다고 답했다. 경찰서나 여성긴급전화 1336,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기관에 신고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4.2%에 그쳤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했다가 2차 피해로 이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67.3%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지도자나 동료선수들에게 다르게 알린 경우'(19.2%),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경우'와 '가해자와 합의 및 화해를 강요한 경우' 각 13.5% 등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선수의 23.4%는 장애인 체육에서 성폭력 문제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 이유로 '장애인 선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기 때문에'(26.4%)가 가장 많았고,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선수들 간 위계관계, 상명하복의 스포츠 문화 때문에'(16.5%)가 그 뒤를 이었다.

올림픽의 정치화 이슈의 휘말린 IOC.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만 재강조

'올림픽의 정치화' 이슈에 휘말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강조했다.

IOC는 12일 스위스 로잔에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 주재 아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10회 올림픽 서밋'을 마치면서 공식선언을 통해 "IOC는 올림픽과 스포츠에 대한 어떠한 정치화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IOC와 올림픽, 나아가 전체 올림픽 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IOC의 이날 선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원칙 외에 어떤 구체적 내용도 담고 있지 않았으나 현재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겨냥한 발표임엔 틀림없다. IOC는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짧은 두 문장에 '단호히(firmly)', '강력히(strongly)'라는 표현을 빠짐없이 사용하며 이슈의 확산을 경계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지난 7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내에서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과 학살 등을 이유로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되, 어떤 형태의 공식 외교사절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확산됐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동조한다는 뜻을 밝혔고, 일본도 전 올림픽상을 보내는 수준으로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프랑스가 "외교적 보이콧은 실효성이 없다"며 "아주 작고 상징적인 조치들을 위해 올림픽을 정치화 해서는 안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고 있다. 당장 2024 파리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프랑스로서는 실익이 없는 외교적 보이콧으로 굶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계획을 일찌감치 굳힌 러시아는 미국의 주장에 "무의미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이에 편승해 "미국은 올림픽 정신을 더이상 훼손하지 말라"며 반격을 가하고 있다.

IOC의 글로벌 후원사들도 '경제적 보이콧'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IOC로서는 새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이슈 확산을 경계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윤리센터, 지역별 사무소 3곳 개소...본격적 업무 시작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6726629279504&mediaCodeNo=258>

[단독]직접 자리 만들어... 경호업체 출신 성남시 공무원의 황당 셀프 채용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2/18/QXCLZJOISZA7PHWCER5Q2

[XQFU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2/18/QXCLZJOISZA7PHWCER5Q2)

다리를 절단했다, 역도 '무제한 체급'으로 몸을 만들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3840.html

전남교육청, 초등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6_0001690628&cID=10201&pID=10200

체육회 예산 꾸준한 증가...사회적경제 분야 시비 대폭 삭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4610

안전과 효율성 모두 잡은 레이저사격, 대한체육회 정식 종목 목표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85254?ref=naver>

차기 한국체육학회장에 이한경 용인대 교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21916594607600>

속 자란 평창 새내기들...베이징선 메달 사냥 이끈다

<https://www.mk.co.kr/news/sports/view/2021/12/1138363/>

대한육상연맹, 꿈나무·청소년 선수 비대면 동계훈련 실시

<https://www.news1.kr/articles/?452308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